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John Bridges, 1818-1854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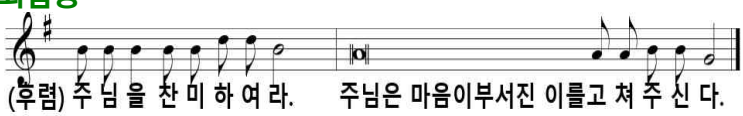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욥기 7,1-4.6-7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제2독서 | 1코린토 9,16-19.22-23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 마르코 1,29-39

## 성가 | 입당성가 [55] 1절 예물준비 [217]
영 성 체 [178] 파견성가 [55] 2,3절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 사 봉 헌

| 연미사 | 봉헌 |
|---|---|
| 김정출 마리아 | 김재운 프란치스코 |
| 이정진 얀토니오 | 가족 |
| 양행자 스콜라스티카 | 박정자 로사 |
| 이홍근 안드레아 | 박정자 로사 |
| 이홍근 안드레아 | 김인숙 로사 |
| **생미사** | **봉헌** |
| 김현식 솔로몬 | 홍경란 베로니카 |
| 오교환 | 오지민 아녜스 |
| 이영애레지나, 이미진 죠앤그레이스 | 가족 |
| 이중근 요셉 건강 | 익명 |
| 신부, 수녀 | 성소후원회 |
| 조복용베네딕도, 성희경헬레나영육건강 | 주바울라 |
| 박수정크리스티나, 박수진줄리아영육건강 | 양미숙 마리아 |
| 배안순아기다축일, 이경숙스콜라스티카축일 | 박정자 로사 |
| 민사현베드로, 민사룡가브리엘 건강 | 민덕미 안젤라 |
| 임영애 스텔라 건강 | 민덕미 안젤라 |
| 표해심 카타리나 생일 | 박정자 로사 |
| 박아영 크리사 생일 | 한안나, 데레사 |
| 성미나 아가다 | 성모회 일동 |
| 진문자 스콜라스티카 | 성모회 일동 |
| 성령기도회 | 성령기도회장 |

| 날짜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 지향 | 성찬 봉사 | 복사 |
|---|---|---|---|---|---|---|
| 2월 4일 | 백이백 | 강호영 | 김승연 | 김승연 | 김종선 | 양글라라 한데레사 |
| 2월 11일 | 정유진 | 민완준 | 이경자 | 이경자 | 민덕미 |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양글라라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 미사 |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
| 혼인 성사 | 신부님께 직접 문의 |
| 유아 세례 |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
| 예비신자 교리<br>견진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
| |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

|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
|---|
|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28,850단** |

## ▶2월 영명축일

2.2 모든 수도자 2.3 블라시오 2.5 아가타 2.10 스콜라스티카 2.14 치릴로 2.23 폴리카르토

##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13,2

## ▶2024년 사목위원 명단

| | |
|---|---|
|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
| 사목부회장 | 장혜윤 크리스티나 |
| 재무 | 고은경 모니카 |
| 전례분과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
| 교육분과장 | 이지훈 아녜스 |
| 성모회장 | 양미숙 마리아 |
| 연령회장 | 표해심 카타리나 |
| 요셉회장 |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
| 청년분과 | 분과장: 강경모 토마스아퀴나스 |
| | 부분과장: 김병훈 레이몬드 |
| | 청년회장: 진현종 빈첸시오 |

## ▶미사중 초 축복, 오늘(2/4)

개인적으로 초를 가져오신 분들은 미사전 제대앞에 두셔요
*학부모회 초판매: 미사후 다미안홀

## ▶설 명절

**미사**: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미사는 2월 11일(주일) 09시 15분에 거행됩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 신청**: 선종하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 지인의 연령을 위한 미사봉헌 신청받습니다. **신청마감: 2/4일(오늘)**
신청: 친교실 연령회.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설 행사**: 미사후 친교실에서 '설 세배', '전통놀이'가 진행됩니다.(청년회 주관)

## ▶성지(聖枝) 회수

2023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를 **오늘(2/4)까지** 회수합니다. 성당뒤 또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재의 수요일 (2/14)에 교우분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에 사용됩니다.

## ▶Youth 교리반에(교리와 활동) 모든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대상: 6학년 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의 모든 청소년들.참석자 가운데 견진 대상자들은 2024년 3월 30일(부활성야미사) 견진성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안에서 즐겁고 의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교우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모임: 2/18(주일)** 신청: Sr.효주 347-834-5784

"청소년의 웃음소리는 하느님의 음악입니다. ♬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교회로 초대해 주세요~"

## ▶제66차 기초 성령세미나 신청(미동북부 지역 성령쇄신 봉사회)

일시: 2024. 3/14(목) 5pm~3/17(일) 5:30pm 3박4일
장소: 뉴튼 수도원. 지도: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신청마감: 2/29(수) 참가비: 390불(숙식제공)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 ▶레지오 마리애 캐나다 성지순례(미동북부 지역 교육협의회)

일시: 2024. 4/25(목)~4/27(토) 2박3일, 참가비: 800불
장소: 캐나다(Montreal,Quebec) 지도: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신청마감: 2/29(수) 신청:꾸리아 단장 윤루시아 347-633-3767

## ▶2024, 성경 통독 합시다~

날마다 15분이상,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매일 와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맛 들이는 굳건한 신자가 되셔요. 성경 통독표는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3월 유아세례 신청하셔요~

일시: 3/10(주일) 09:15 미사중 신청: 사무실

###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 승 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릭은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 46시간?

스위스의 80살이 된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재미 삼아 자신이 써 온 시간들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시간들을 꼽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잠자는 데 쓴 시간 26년, 일한 시간이 21년,
식사 시간이 6년, 약속 기다리는데 5년
불안과 조바심으로 낭비한 시간이 5년,
세면 시간 228일, 넥타인 매는 데 18일,
담배 불붙이는 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은 총 46시간 뿐..

## 46시간?

80년을 사신 분이 기억하는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고작 46시간이라는 말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바쁘게 산 시간에 비해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지 않은 건
우리에게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진짜 기쁨과 행복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간을 배분해 보는 건 어떨까요?
1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시간을 쓰길 잘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침 즉 복음을 선포하신 후 일행(시몬)의 집에 들러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픈 여인(시몬의 장모)를 보시고는 고쳐주십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라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밤 시간을 전합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니 밀려드는 인파에 아마도 밤늦게까지 일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새벽기도나 밤중기도는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는 또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갈릴래아 하루 일과를 보면서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참 바쁘셨겠구나'입니다.
낮에는 회당에서 밤에는 숙소에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깜깜할 때 외딴곳을 찾아 기도까지 하셨으니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강행군입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겠구나'입니다.
그 전날 흥행에 들뜬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중심을 잡으셨기에
흔들림 없이 그 전날의 성공이 아니라 다음 사명을 향해 길을 떠나십니다.
80살 노인의 지난 시간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아야
바쁨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더 많이 내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정형 세례자요한 신부